

Better People Better World

# 좋은사람 좋은세상

2009 7.8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공공기관 선진화에 주력



머릿글 나노종합팩센터 소장 이희철

7·8월프로그램

Issue&Seminar

\_국회의장 김형오 [제1600회 기념포럼]

\_웅진코웨이 사장 홍준기

CoverStory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세상을 보는 눈 온생명평생교육원 원장 김인술

지자체포커스 대전 서구청장 가기산

실버세미나

2009 제주섬머포럼

명사초청특강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기우

발행인편지

윤병철칼럼

표지인물 이달곤 장관 | 사진 오경근 원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통권 제94호 [비매물]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9년 7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정용달 T.070-7500-9500(대) F.2203-1974 디자인 페가수스(www.pegasus.or.kr)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www.khdi.or.kr (주)광진문화

# The Romantic Palace in Dream

당신이 꿈꾸는 하늘, 햇살, 바람, 파도, 웃음 그리고 추억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휴식을 담았습니다.

기대 그 이상의 가치,  
롯데호텔제주



## \*롯데호텔제주 하하호호(夏夏好好) 써머패키지(객실 + 2인조식)

기간	가격 (세금·봉사료 포함)	공통특전
7/17~23, 8/17~23	슈페리어룸 39만원 Lake Garden(온돌룸) 42만원 디럭스룸 43만원 럭셔리룸 47만원 샤롯데룸 5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름휴가 행복 PLUS- 100%당첨 스크래치 복권 제공</li> <li>키즈월드 무료이용 (7/15 오픈 예정)</li> <li>피트니스 센터(실내수영장, 사우나, 헬스) 무료이용</li> <li>투숙객 전용 야외수영장 무료이용 및 비치볼 증정</li> <li>식음료 영업장 10%할인, 세탁 20%할인</li> </ul>
7. 24 ~ 8. 16	슈페리어룸 43만원 Lake Garden(온돌룸) 46만원 디럭스룸 47만원 럭셔리룸 51만원 샤롯데룸 55만원	

\*상기 금액은 2인 조식이 포함 된 가격(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며, 2인조식 제외시 3만원 차감 됩니다.

# 나노기술 사업화 현황 및 전략

이희철 나노종합팹센터 소장

21 세기의 미래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일으킬 기반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술은 IT분야뿐 아니라 의료, 바이오, 화학, 환경, 에너지, 기계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나노기술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재단(NSF)의 로코(Roco) 박사는 2015년경 나노기술의 세계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산업화가 이처럼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기초소재에서 중간제품, 최종제품에 이르는 산업가치사슬에서 나노기술을 채택하는 비율이 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나노기술의 민간투자 부문에서 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투자로 가장 상업화 지향적인 미국의 나노시장은 초기단계의 나노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기술 개발과 응용에 참여하려는 미국 중소기업들의 활동도 활발하며, 최근에는 첨단기술력을 지닌 다수의 나노기술 벤처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노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발간된 '세계 나노기술 산업화동향(2007.12)'에 의하면, 국내 나노기술 관련 기업체의 연도별 변화에서 2001년 78개에서 2006년 말에는 274개로 증가하였다. 그 중 벤처기업이 145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92개, 대기업이 37개로 파악되고 있다.

중소규모의 연구비 투자로 사업화가 가능한 나노소재 분야에서는 중소 및 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 대규모 연구비 투자가 필요한 나노급 전자소재개발 등 공정분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의 나노기술 사업화를 위한 접근전략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연구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노기술은 속성상 기초연구가 그대로 사업화로 연결되므로 특허 수립을 포함한 독보적인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의 실용화에 있어서도 물질 혹은 물성을 숙지한 연구자들이 기업과 직접 관계하는 것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나노기술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 집중되어 있고, 2000년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로 대학과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원의 기초연구가 진행되어 상당한 기반지식이 이미

축적되어 있으므로 사업화에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접목되는 학제융합적인 기술이므로 기업의 특정 핵심기술을 사업화 하려면 다른 기업의 지식, 특허, 인력 등을 결합시키든가, 적용처 확대를 위해 수요처 기업과 개발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나노기술의 시드를 사업화로 결합시키기 위한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톤지구에 비해 국내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그다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최종수요처기업 또는 핵심기술기업 중심으로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계구도가 초기에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 나노팹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노기술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고가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며,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국내에서도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산학연의 많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한 것이 나노팹센터이다. 현재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나노종합팹센터(www.nnfc.com)를 비롯하여 전국 6곳에 각 기능별로 분화하여 산재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검증뿐 아니라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리버스엔지니어링과 같은 종합적인 분석평가 등을 나노팹을 활용함으로써, 초기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노팹의 축적된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이희철 소장



1954년 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부터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반도체공정 및 소자, 적외선센서, 나노전자 분야에서 20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공군사관학교 교관, 전자공학회 이사, 일본 닛케이 나노기술 Adviser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군사과학 기술학회 감사,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이사, 미국 SPIE학회 프로그램위원으로, 2004년부터는 나노종합팹센터의 초대 및 2대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7월

##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한 드러커 솔루션

제1603회 7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여 드러커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가 "드러커 해법"을 주제로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은옥, 장영철 등, 이사장 조동성)와 미국 피터드러커 경영대학원 등의 공동주최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최되었다.

2005년 타계한 드러커는 생전에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과를 보인 '기업가정신의 나라'로 평가했다. 드러커 경영철학의 핵심은 인간개발연구원의 설립이념과 같이 인간존중 경영이며, 그는 평생에 걸쳐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문 명예이사장은 고용창출과 기업발전의 해법은 드러커가 강조한 지속적 혁신이며, 기업이 직원들의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해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고, 21세기형 기업가정신은 과거처럼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했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을 포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의 문국현 이사장을 모시고 지난 6월 1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피터드러커 100주년 기념 콘퍼런스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경제와 기업들의 위기 극복 해법을 찾아보는 동시에 자신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유한킴벌리를 떠나 혼란스러운 정치무대에 뛰어들어 초년 정치인으로서 한국기업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아시아경제와 한국과 일본의 선택

제1604회 7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09년 1/4분기 일본 GDP는 연 환산 12.7% 감소하였다. 사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범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유럽인데, 정작 주택버블 및 부실자산 문제가 크지 않았던 일본이 큰 타격을 받았다.

세계적인 수요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겠지만 중국의 GDP는 1/4분기에 연 환산 6.5% 성장했다.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자 일본과 중국 모두 수출이 감소했지만 일본은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 등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면서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고조되면서 엔화는 급속도로 평가절상 되었다. 엔화의 가치는 2008년 9월, 2007년 평균의 106% 수준이었으며, 2009년 1월에는 136%에 이르렀다.

우리 경제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했던 패턴과 비슷하게 발전해 왔다. 다행히 이번 위기에서 IMF 때 다졌던 경쟁력을 기반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도 입고, 삼삼과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등 일본보다는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불행에도 견딜 수 있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향후 경제 방향을 현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어가 능통한 일본의 경제학 교수이자 일본을 대표하는 한국경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유키코 교수를 모시고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문국현

한국 피터드러커소사이어티 명예이사장,  
국회의원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유한킴벌리 사장 | 킴벌리클라크 북아시아 총괄 사장 | 천리포수목원 재단이사장 | 한국여성재단 이사 | 환경재단 이사 | 제18대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 선진과 청조의 모임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훈〉 제8회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경영자 대상, 제4회 전경련 경영인대상, 금탑산업훈장, 제19회 한국경영학회 경영자대상 차



후쿠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경제학부 교수

日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졸업 | 美 예일대 대학원 졸업 | 日 와세다대 경영경제학 박사 | 일본무역진흥회, 장은중합연구소 근무 | 아오야마 가쿠인대(青山學院大學) 경제학부 교수 | 경제산업연구소 Faculty Fellow | 한국 산업연구원, 고려대 경제경영연구소 객원연구원 | 美 콜롬비아대 객원연구원 | 통산성 산업구조조심의위원 |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 경제발전과 민간자본, 한국의 구조조정, 일본경제의 구조전환과 일한경제관계, 일한자유무역의 기초구상 차



**이준 필립**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파리1대학 사법전공 석사 | 파이1대학 사법전공 박사 준비과정 | 프랑스 파리 변호사 자격 취득(1988) | DS Avocats Paris 법률사무소 근무 | 프랑스 상공회의소 근무 | 김.신.유 법률사무소 근무 | 법무법인 두우 근무 |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 EU연구센터 전문위원 | 프랑스 정부 무역고문 | 서울시 외국인투자자문회 위원

<상훈> 2006년 프랑스 공로훈장

<저서> 이제는 유럽이다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사장

홍익대 미술학부 수료 |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 고려대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수료 | (주)현우 대표이사 사장 | (주)한국폴라 대표이사 사장, 회장 | 북경현우예술대학 이사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국제디자인대학원 이사 및 아카데미 원장

<상훈>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대표자상, 제22회 상공의 날 모범상공인 대통령표창, 제1회 산업디자인대상 국무총리상

<개인전> 개인전 5회 개최(서울, 동경) 외 명사미술전 10회 출품

<저서> 아버지의 편지, 본능경영

## 위기의 시대, 새롭게 떠오른 대안 - 유럽형 모델

제1605회 7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금 미국이 맞고 있는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과히 최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야말로 '유럽형 모델'을 미국형 모델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물론 유럽도 예전부터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 왔다. 2010년 유로 가입국의 실업률은 10% 이상이 될 것이고, 공공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이며,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경제위기가 오히려 유럽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전례 없는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을 갖게 된 유럽 국가들이 오랜만에 이전자를 뒤로 미루고 하나로 뭉쳐 같은 목소리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1의 해외투자 상대가 되었으며, FTA 체결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유럽과 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형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프랑스 및 유럽 기업과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불상공회의소의 이준 필립 회장을 초빙하여 뿌리깊은 유럽의 민족주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와 국제 관계를 창출하는 유럽의 도전 과제와 가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세종대왕, 그리고 르네상스

제1606회 7월 2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유럽 문화의 융성과 강성함을 논할 때면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다. 이른바 문화운동, 혹은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 르네상스 운동은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적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꽃피는 바로 이 시절이 조선왕조에서도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하게 타오르던 세종 18년 연간이다. 이 때를 전후 한 세종시대의 문예부흥(文藝復興)을 살펴보면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악기가 정비되면서 '종묘제례악'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음악이 작곡되었고, 우리의 고유문자인 '훈민정음'이 제정되어 반포되었다. 이 업연한 역사적 사실이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과 꼭 같은 시기에 조선반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대왕의 애민사상과 문예부흥을 유발한 르네상스 운동을 모티브로 삼아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동양화가이자 화장품 제조업체 CEO를 지낸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초빙하여 세종문화회관을 공연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8월

## CEO들은 마케팅에 집중하라

제1607회 8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는 항상 순환하게 마련이다.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다. 호황과 불황의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기업의 옥석은 가려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불황을 타계할 만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열을 올린다.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기업은 불황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실을 다지고 불황에서 살아남아 위기를 기회로 다스린 기업은 급성장 한다. 이런 기업은 불황기를 다른 기업이 도태되면서 생겨난 시장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불황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투자, 고객 집중화, 유통 채널의 효율화 등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아태마케팅포럼의 조서환 회장을 초빙하여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조 회장은 애경을 마케팅사관학교로 키우고, KTF 쇼(Show) 마케팅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국내 최고의 마케터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사고로 인생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낸 인물로 KBS아침마당, 서울대학교 등 수많은 강연에서 큰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연구회는 25년간 베테랑 마케터로 활동해온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성장 전환점이 될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한국정치와 미국정치

제1608회 8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미 오바마 정부는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가능한 대비태세를 갖추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 양자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여러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는 오랜 기간 공전상태 속에서 폭력과 냉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전자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근대사편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로 실리기도 한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정치가 후진적인 모습을 벗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공천제도에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4자회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쓴 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을 초빙하여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들어보고 우리의 정치문화를 미국이라는 정치선진국의 거울에 비춰 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서환

아시아태평양 마케팅포럼 회장 / KT 전무

경희대 영문학과 졸업 | 경희대 경영학 석·박사 | 다이얼코리아 마케팅이사 | 한국로슈 마케팅이사 | 애경산업 마케팅본부 상무 | KTF 마케팅전략실장 상무, 수도권마케팅본부장 전무, 법인사업본부장 부사장 | 한국마케터협회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마케팅연구회 회장 | 한국능률협회 마케팅평의회 회장

〈상훈〉 전경련 경영인대상, 한국능률협회 경영인대상, 경희대 경영인대상 외

〈저서〉 한국형 마케팅, 대한민국 일등상품 마케팅전략, 모티베이터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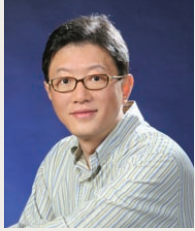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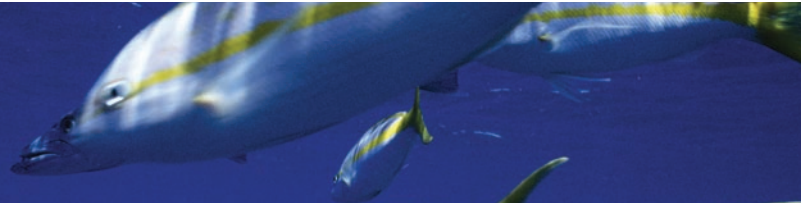
김창준

워싱턴포럼 이사장 / 前 미연방 하원의원

美 남가주대 토목공학과 졸업 | 美 남가주대 토목공학 석사 | 한양대 정치학 박사 | 1976년 고속도로 및 하수처리프로젝트 설계회사 제이 김 엔지니어스(JAY KIM Engineers) 설립 | 美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市 의회 의원, 시장 | 美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3選, 한국계 최초) |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 대통령실 정책홍보 자문위원 | 워싱턴포럼 이사장

〈상훈〉 103차 회기동안 초선 동료의원들로부터 우수의정상, The Ellis Island 명예훈장 외

〈저서〉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 미제정치 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학 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초빙연구원 | 서울대 소비자학과 학과장, 학부장, 호암교수회관 관장,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트렌드분석센터장 |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소비자정책포럼 간사 | 조선일보 아침논단,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노트' 고정 칼럼니스트

〈상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 서울대 교육상, 한국소비자학회 최우수논문상, 정진기언론문화상 외

〈저서〉 사치의 나라-럭셔리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09,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과 휴먼라이프 예측 외



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 / 효성그룹 사장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 서울대 공학 석사 | 美 오하이오대 석사 | 美 리하이대 재료공학 박사 | 메사추세츠주립대학 화공/핵공학과 부교수(중신직), 첨단소재 연구소장, 물리학과 겸직교수 | 인제대 총장 | 신성장동력기획단 주력기반산업 위원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국가과학기술혁신 특별본부 위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국가 R&D사업 중장기 토달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KISTEP) | 효성그룹 사장

###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흐름

제1609회 8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소비자를 알아야 제품이 보인다. 소비자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남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기불황의 늪에서 기업들을 건져줄 히든카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인구학적 토대의 변화 추이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 추이, 그리고 문화적 징후들(symptoms)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살펴보면 사회·문화계 전반에 걸쳐 '엄마 신드롬'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적 가치에 대한 본원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페미니테크(Feminine-Tech, 여성 지향적 기술)와 패밀리테크(Family-Tech, 가족 지향적 기술) 시대의 준비를 의미한다. 또한 지갑이 얇아져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쓰는 신(新) 호모에코 노미쿠스의 등장으로 불황기에는 고급의 우등재가 안 팔리고 저렴한 열등재가 많이 팔린다는 법칙이 깨지고 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소비트렌드 성향들을 연구하여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연구결과인 「트렌드코리아 2009」와 조선일보 트렌드노트 등의 칼럼에 소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소비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어떻게 트렌드를 예측하고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기술강국으로 만드는 미래지도

제1610회 8월 2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식은 힘이다? 아니다. 지식을 찾고 공유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특허가 혁신적 기술을 대표한다? 아니다.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 그럼 경쟁자와는 적인가? 아니다. 적과 네트워크를 해야 한다. 경쟁자이자 곧 동지이다. 효성기술원 성장모 원장의 말이다.

사실, 세계 최초로 mp3를 발명한 국내 기업 새한정보시스템은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반면 미국의 I-pod은 mp3를 잘 활용하여 문화의 변화까지 이루는 패거리를 이룩했다. pop-casting이라는 신문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섬유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나노섬유, 친환경 섬유, 슈퍼섬유 등의 융합된 기술개발을 토대로 높은 성취를 이끌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은 저가제품, 미국은 원천기술, 일본은 기능성제품, 유럽은 패션디자인이라는 각기 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성장모 원장은 마케팅을 연계한 신 R&D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1세기 미래 기업은 단지 새로운 기술과 특허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에서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성장모 원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져야 할 R&D의 핵심가치와 미래산업의 아젠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제1600회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6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하여

김형오 국회의장

지금 우리는 안보위기, 경제위기, 통합과 화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때에 국회는 도대체 뭘 하는가? 언제 국회를 열 건가? 하는 질책을 하실 것이다.  
국회가 문을 닫아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다.



### [인사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600회를 맞으며 장반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경영자연구회 모임은 1975년 2월 5일 첫새벽을 깨우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한 회 두 회 달려오다 보니 100회, 500회, 1000회, 1500회를 넘어 드디어 16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인간개발, 인재개발,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일류기업의 기본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가 달려온 인간개발경영자 조찬모임이 "조찬학습문화의 원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공부하는 모임, 성공한 리더의 산실, 리더십교육의 전당, 평생학습의 모델,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CEO이신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한국사회를 이끌어오신 지도자중에서 저희 연구원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강사님들께서 매주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기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자연구회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많은 새벽공부 모임이 탄생한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2월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연구원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거듭하며 한국경제신문사와 함께 더욱 사랑 받는 명품연구회로 발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과 리더십 교육의 산실로써 IT, BT, NT 등 과학발전과 더불어 사람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PT(People Technology)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실용적인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표어에 담긴 인간개발연구원의 꿈과 의지와 열정을 끊임없이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세우고 개방적인 자세로 회원님과 강사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오늘부터 목요일 경영자연구회를 함께 하게 된 공동주최사의 대표로서 인사드리고, 의미있는 1600회 조찬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600회라는 전통이 빛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 주최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주 새벽을 밝혀 시대의 고민을 함께 해 온 목요일 조찬회가 경제위기 극복의 지혜를 찾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700회, 2000회, 3000회, 새로운 기록을 함께 새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일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1600회 조찬회를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34년 동안 기업인의 능력개발과 교류 기회를 제공해 온 인

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6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강산이 세 번 이상 바뀌는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목요일 아침 조찬 연구모임을 마하여 오늘 경이적인 16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은 찬사 받고 격려 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고 자본과 기술도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능한 인적자원과 이를 뒷받침해준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경쟁력 강화의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 이상으로 기업인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뜻 깊은 1600회 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인간개발연구원의 1600회 조찬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 전, 외국 선교사나 외국 방문자들이 글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된 것이 '한국 사람들이 나태하고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0여년 만에 한국에 조찬문화, 조찬연구문화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 효시가 바로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데 오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창작품, 걸작품들을 쏟아내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국력으로 사회공동체의 힘으로 수렴되어 통합된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문화, 기술, 기업에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국가의 힘으로 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정치 매커니즘과 그러한 인재가 없으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이 한국의 '인격개발연구원'으로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인간개발연구원의 미래과제는 인격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1600회 조찬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사] 김후란 시인 / 문학의집 · 서울 이사장



### 새벽을 여는 사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천6백회 조찬포럼을 축하하며

여기 새벽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의 청정한 새기운 안고  
잡자는 이들 흔들어 깨우는  
힘있는 손이 있습니다

새들이 저 하늘에  
길없는 길 열어가듯  
예지와 희망의 길 목마를 때  
저 광막한 우주의 팽창력처럼  
이 땅에 활기찬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  
기계문명 산업사회 소음 속에서  
정녕 사람의 존엄성 지켜가자고,  
좋은 사람만이 좋은 세상 만들어간다고,  
참다운 일깨움  
소신의 길 찾아 나섰습니다

어언 34년, 1천 6백개의 돌탑 세우고  
또다시 미래를 향해  
가슴 벅찬 언덕을 오릅니다

빛으로, 향기로, 바람으로  
생명 이끄는 힘  
우리 모두 평화로운 발전을 기원하며  
큰 세계 차원 높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나라사랑 뜨거운 피 끓는 선각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여는 나라  
성숙의 나라여  
아름다운 나라여

[주제발표] 김형오 국회의장

### 한국정치 상당한 발전 이룬 것이 사실

사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입법부 수장 자리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손발이 묶여 있다. 사장이 임원회의 소집하듯 의장이 본회의 소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철저히 정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의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회 소집은 1/4 이상 의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의장은 요구가 있을 때 의장 명의로 공고를 낼뿐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소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야당과 합의 없이 소집하면 참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론이 단독강행, 일방처리 등으로 몰린다. 그래서 국회는 법과 관례와 관행으로 협상을 하고 회기를 연다.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 모이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제재 수단이 없다. 결국 의장의 권한이나 법률적인 힘이 아닌 권위를 가지고 원내대표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결국 국회 운영의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다. 씨름판에 앉아서 살바 싸움하느라 진을 빼는 것과 같다. 씨름선수가 살바 싸움만 하고 있으면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려버린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 모양이다.

### 사회적 갈등구조 해소가 국가적 과제

정치를 위한 변명을 좀 해야겠다. 국회가 살바 싸움하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한국정치는 지난 6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했다. 우선 보스정치와 안방정치가 사라졌다. 양김이나 3김으로 불리던 각 정파 보스의 집 현관에는 아침마다 정치인과 기자들이 벗어 놓은 구두가 수십 켤레씩 놓여 있었다. 하지만 안방정치를 정당정치가 대체했다.



돈 안 드는 선거가 정착됐다. 물론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정치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당의 자율성도 높아졌다. 과거에는 모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대한민국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없다. 여기에 정보화까지 세계강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 모두를 30년만에 이룩했다. 30년 전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선풍기인지 에어컨인지의 차이였다. 30년 전의 차이는 감내할 수 있는 차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갈등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이다. 우리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미숙하다. 민주화 투쟁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체제상으로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민주화 투쟁방법, 투쟁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타협하지 못하는 문화'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내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런데 외교학과와 정치학과가 자연스럽게 통합돼 있는 다수의 대학처럼 서울대도 동창회 차원에서는 두 학과를 이미 통합했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그러나 정작 두 과의 통합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타협 못한다고 정치인만 탓할 일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타협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미디어발전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의원들끼리 옥신각신 하지 말고 각 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사흘 동안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엘리트 사회조차 타협과 통합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증거다.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이 그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양보와 타협, 대화와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도 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당시만 해도 원내대표가 타협을 하고 싶어도 당내로 돌아가서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의원총회가 열리면 강경파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방향이 잡히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협상할 때는 과감해야 한다. 둘째, 당내 강경파를 설득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직권상정 할 겁니까?" 묻는다. 직권상정은 정치학 전공자도 잘 모르는 희귀한 용어인데,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국회(國會)는 나라 국(國)에 모임 회(會)로 구성돼있듯이 의논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공간이다. 직권상정이 정치학사전에서나 나오는 학술용어가 되기를 바란다.



### 소신과 사명 가지고 개헌 앞장설 것

국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87년 헌정체제가 20년 이상 유지돼 오는 동안 우리는 직선제를 통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다섯 분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런데 직선 대통령 네 분이 모두 불행한 일을 겪었다. 재임 중 이들이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갔고, 재임 후에는 본인이 사찰로 유배를 가거나 법정에서 섰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안타깝고 외부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불행은 국민의 불행이고 나라의 불행이다.

물론 나도 제도 개선이 만능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불행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같은 권력구조 못지 않게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87년 체제' 등장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은 당시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이러한 변화까지 수용하는 새로운 헌법 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개헌에 앞장설 것이다.

### 정치문화 바뀌지 않는 한 정치 발전 기대 못해

이와 함께 한국 정치와 국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과업을 드리고 싶다. 첫째, 공천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천권을 각 당의 몇 사람이 계파별로 나눠먹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원들이 4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천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보다 계파 보스 찾아가는 것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공천 문제만 나오면 꿈쩍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천 방식을 개방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정당 구조도 모르는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 '물갈이'를 외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 권위를 파괴시키면서 물갈이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 17대 국회가 역사상 가장 많은 물갈이를 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게 나왔다. 18대 국회도 두 번째로 많은 물갈이가 있었지만 지난 1년의 평가는 처참하다.

둘째, 정당으로부터의 자유다. 3공화국 헌법 때까지 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짓밟히고 억눌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 헌법에 정당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도와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후 오히려 '정당의 비대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은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민주적 논의과정이 더 중요하다. 당론이 국회의원을 속박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셋째, 지역구민으로부터의 자유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의원들은 새벽에 집을 나와서 새벽에 들어간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 비슷한 시간대에 약속을 보통 3~4개씩 잡는다. 왔다가 일찍 가면 섭섭해하지만 오지도 않으면 뿔아졌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욕을 먹는다.

미국 의원들도 바쁘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성격이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사친회나 도시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들과 교육문제나 도시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아니면 지역구의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에 초청을 받아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연설한다. 지역구활동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 계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심야에 노래방 찾아가고, 통반장 여행 간다고 새벽에 나가서 인사하는 정치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정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헌국회의 임기가 2년이었던. 그런데 1년 평균 회기가 320일이었다. 대우도 형편없었지만 밤늦게까지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에는 코빼기도 비출 시간이 없었다. 결국 재선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그 이후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바로 다음날부터 지역구를 누빈다. 지역구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활동은 이제는 제한돼야 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뜻도 있고 포부도 있고 의지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으로부터의 자유, 정당으로부터의 자유, 지역구민

으로부터의 자유가 확보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클로징 리마크] 조순 전 경제부총리 /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김형오 의장께서 우리나라 정치가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했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보스정치, 안방정치가 해결되고 정당정치로 전환됐다. 돈 안 드는 선거도 하게 됐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의 기본이 깨끗한 데 있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안방정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거기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양보가 이루어진다. 전 미 하원의장을 지낸 토머스 오닐은 'All politics is local'(모든 정치는 지방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지방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비롯된다는 말과 통한다. 보스정치도 필요하다. 국회에도 보스가 있어야 한다. 보스가 있어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보스가 좋은 보스나 나쁜 보스냐의 문제다.

국회가 생산성을 지녀야 한다. 생산성이 없는 국회는 아무리 깨끗하고 보스가 없고, 안방정치가 없다고 해도 소용없다. 지금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친이, 친박 등 보스는 지금도 있다.

이율곡이 선조에게 올렸던 진언을 생각해 보자. "天下之事 不進即退(천하지사 불진즉퇴) 國家之勢 不治即亂(국가지세 불치즉난) 進退治亂 實在於人(진퇴치난 실재어인) / 천하의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난다. 국가의 세는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나아가고 물러나고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실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세상은 간단(間斷)없이 변화한다. 모름지기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이 정치다. 여당과 청와대도 멀리 20년 전까지 볼 필요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기타 여러 분야가 어땠는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국가지세가 다스려지고 있는지, 어지러워지고 있는지. 천하의 대세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비교해보기 바란다. 분명 좋아진 점도 많을 것이고 나빠진 점도 많을 것이다. 그것을 긴 안목에서 나라의 정세를 다스리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 **김재**





제159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5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 신시장을 창조하는 제품과 마케팅의 융합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



웅진코웨이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같은 생활가전제품을 만드는데, 정수기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7.1%, 비데가 47.8%, 공기청정기가 40.5%에 이른다. 생활환경 가전분야에서 웅진코웨이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데 사업의 경우 경쟁사보다 2년 늦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1위로 뛰어올랐다. 외환위기가 끝나고 1998년부터 렌탈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지 말고 빌려쓰자는 윤석금 회장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해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생활가전 분야 1위 자리 고수

웅진코웨이에는 440만 명의 고객이 있다. 우리에게 440만 고객은 의미가 남다르다.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두 달에 한 번씩 고객을 방문해 관계를 맺고 있다. 고객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코디들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제품이 판매되는, 방문판매사업의 새로운 표준을 웅진코웨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기부터인가 시장 포화와 저가 제품 난립으로 성장률이 둔화됐다.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과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2006년도에 그룹에 합류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웅진코웨이의 코디를 통해서 440만 고객과 1:1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채널은 대외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1만2천 코디의 고객 네트워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러브콜도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였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런 러브콜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회사의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렌탈시스템, 1만2천명의 코디, 44만의 고객, 면대면 채널, 좋은 관계집 등이 잘못된 마케팅을 통해서 본질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코디'는 고객과의 관계 이어주는 회사의 핵심역량

우리나라에서 우리회사의 코디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은 없다. 코디는 서비스맨이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제품을 렌탈로 판매하면 매일 받는 렌탈요금에는 제품의 가격 외에 매일 찾아가는 서비스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하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통해서 고객이 만족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주변에 제품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배우기까지 했다. 그때까지 본사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고객이 편지를 보내오면서 알게 됐다. '장애가 있어서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웅진코웨이 코디가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내용이였다. 이렇게 고객과 코디와의 관계는 그것을 넘어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매출의 75%가 코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달 매출에서 75%가 기존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기존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고 서비스에 만족해서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짐으로써 주변에 소개시켜주거나 본인이 제품을 재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코디는 웅진코웨이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자산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고객이다.

회사 핵심역량의 외부 리브콜이라는 딜레마에 빠졌지만 우리는 코디를 통한 타사 제품판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코디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드리기로 했다. 지금 16개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데, 이들 업체의 제품을 코디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그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것이다. "웅진코웨이 고객이기 때문에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웅진코웨이 고객이라고 밝히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코디를 통해서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것이다. 할인해주고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다. 웅진코웨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 고객에게 이익 돌려주고자 시작한페이프리 서비스

지난 5월 6일, 웅진코웨이 창립 20주년 행사에 전 직원들이 모여 큰 행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특별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가정주부로 있다가 코디를 하시는 아주 성실하고 심성이 착한 분이 상을 받으셨다.

그 분이 2년 전에 점검을 위해 고객 자택을 방문했는데, 고객이 말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코디가 정기 방문을 하다 보니 그 고객과 정이 들었고, 기본 서비스 외에 다른일도 도와주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객과의 원활한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를

당연히 타 기업에서 우리 코디를 판매인으로 활용하는 공동사업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보물인 코디를 타 기업의 물건을 파는 판매인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핵심역량의 잘못된 활용은 렌탈 비즈니스의 본질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팔지 말고 그냥 주는 방법을 없을까를 고민했다. 고민 끝에 코디로 하여금 고객에게 제품 구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을 혜택만 제안하고 설명하도록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객에게 100% 이익을 돌려주는 페이프리 서비스는 그렇게 기획됐다. 440만 고객을 가진 회사가 핵심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 고객, 코디, 회사, 제휴사 모두 이익 얻어

실제로 이 구상은 고객, 코디, 회사, 제휴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외환카드의 사례를 보자. 외환카드는 신규로 카드 한 장을 만드는데 5~8만원의 마케팅비용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코디-고객 1:1 채널을 가동하자 비용이 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나온 이익을 단 1원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고객에게 돌려드렸다.

제휴사 입장에서는 성과는 올라가고 비용은 반으로 줄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외환은행에서 발급된 신규 카드의 절반은 웅진코웨이에서 만들어준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도 웅진코웨이 고객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장 렌탈 비용의 상당 부분이 페이프리로 해결됐다.

그렇다면 1원도 받지 않는 코디에게는 어떤 이익이 될까. 코디는 고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객의 이탈을 막고 유지

시켜야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객이 페이프리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받는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 이익을 얻은 고객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니 코디로서도 큰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회사에게도 물론 이익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객에게 이익을 준다면 제품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440만 고객에게 매월 1만원만 돌려드려도 그 비용은 440억원이 된다. 이 비용을 4개월만 지불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1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다.

페이프리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졌다. 페이프리카드를 발행한 후 확인해 보니 고객의 이탈률이 예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아무 회사나 채택할 수는 없다. 페이프리를 준비하던 2008년 초, 440만의 고객, 1만2천명의 코디, 렌탈시스템, 대면시스템, 고객과의 관계가 과연 우리의 핵심경쟁력인지 KFC와 코마케팅(co-marketing)을 하면서 테스트해봤다.

휴대폰을 사용하면 영수증이 배달된다. 거기에 보면 가끔 KFC의 9900원짜리 세트메뉴를 6900원으로 할인해준다는 쿠폰이 있다. 보통 이 쿠폰의 회신율이 0.8%에 불과하다. 100만장 보내면 8천장 정도가 돌아오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KFC와 함께 쿠폰 200만장을 발송했는데, 회신율이 무려 16%나 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들이 쿠폰 할인을 요청하자 당황한 KFC 측에서 제휴 중단을 요청했을 정도였다.

우리는 대면 접촉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영수증에 끼워서 보내는 것과 코디가 직접 고객과 소통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다.


### 페이프리, 고객에게 사랑 주는 통합브랜드로 육성

2008년 페이프리 카드를 출시한 후 5개월 동안 페이프리 외환카드 가입 고객이 8만명이다. 이들에게 26억5천만원을 돌려드렸다. 그러나 웅진코웨이가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다. 외환카드 역사상 콜센터 영업만으로 가장 빨리 만든 실적이다. 카드가 살아있는 비율도 지금까지 만든 카드 중에서 가장 높다. 외환카드를 만들지 않고 페이프리 멤버십카드를 만든 회원들은 74만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물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고객들이 카드 이용금액이 많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얘기한다.

그래서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고 6월 1일 론칭할 예정에 있다. 현대카드로 120만원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6만원을 돌려드린다. 역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웅진코웨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페이프리는 단지 가격을 깎아주는 모델이 아니다. 웅진코웨이에는 개별브랜드가 많다. 모든 브랜드가 웅진코웨이로 연결되어있지만 우리는 브랜드를 앞에 세운다. 정수기는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케어스, 비데와 연수기는 룰루, 음식물쓰레기처리기는 글리베라는 브랜드가 있다.

앞으로는 대표 브랜드로 페이프리를 내세워 광고도 하면서 이끌 어갈 생각이다. '고객에게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웅진코웨이 From 페이프리' 페이프리를 통해서 고객에게 사랑을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브랜드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 이재용 회장과 송언기 회장이 강연을 겸청하고 있다



# 지역간 자율통합, 내년선거 이전 절차 완료할 것

## 행안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공공기관 선진화에 주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_오경근 원장

지난 22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후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각종 현안 처리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해 심 없는 날을 보내고 있는 그는 이 날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지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이 장관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정부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앞으로도 경제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부조직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실·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또는 민영화·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우수한 인재보다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공공기관 선진화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이달곤 장관을 만나 행안부의 현안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이달곤 장관

1953년 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행정대학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2월 행안부 장관에 취임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취임 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축진을 통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Success-Map 구축, 예산집행 실명제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대상 실집행액을 중점 관리해서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죠.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인턴제를 실시하고, 이번 달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2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내부 규제와 절차 간소화에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직, 인사, 입법절차, 계약 및 조달, 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 내부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는 공동으로 덩어리 규제 37건, 기업활동 저해 규제 104건 등 개혁이 필요한 중앙규제 총 419건을 발굴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통합 구상이 궁금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역주



민 스스로 인근 자치단체와 통합을 원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통합은 우선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향후 인구, 면적, 재정력 등 자립기반이 취약해 통합이 필요하거나 통합논의가 미약한 지역으로 통합 논의를 확산시켜 추가 통합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2개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현 제도하에서 자율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교부세 및 국비 지원 확대, 기반시설 설치 및 국책개발사업 우선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대전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달곤 장관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정책으로 수립된 가운데, 행안부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천명된 이후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사업 추진 등이 바로 그겁니다.

행안부도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먼저 녹색성장 정책기조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는 이미 녹색성장책임관 및 전담팀을 구성했고, 이 달 말까지 시도별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 중이에요. 기초단체도 녹색성장책임관과 전담팀이 6월말까지 지정될 겁니다. 한편 '생활속의 녹색성

장' 지식포털(www.green.go.kr)을 지난 3월 오픈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안부 차원의 녹색성장사업으로는 녹색교통망 구축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그린정보화(green ICT)를 통해 공공기관 보유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등 공공청사의 그린빌딩화도 추진하고 있죠.

앞으로도 지자체간 경쟁시스템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민 생활문화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국을 자전거로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10개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선 추진될 사업과 함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희망근로 사업현장을 방문한 이달곤 장관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정부의 녹색성장 핵심사업 중 하나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자전거 전용보험 도입도 추진하고 있죠. 자전거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자전거 축전 개최, 자전거 기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까지 10년간 총 1조 2,4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을 연결하는 3,114km의 자전거길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심내 생활형 노선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원년으로 전국 16개 시·도 2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총 2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0km의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은 통학, 출퇴근, 장보기 등 도심생활형 노선 13개 지역 40km와 관광명소 등 지역특성을 살린 레저형 노선 8개 지역 20km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다양한 시책들이 가시화될텐데요. 우선 내년도는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을 확대해 도심생활형 노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자전거 환승시설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전국 어디서나 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심생활형 U-Bike'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취약계층 25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임금의 일부로 상품권을 지급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영세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1석2조의 서민경제안정 시책이죠.

행안부는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을 지역의 편익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생산적 사업 위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백두대간 보호, 동네마당 조성, 자전거 인프라 개선, 공장 진입로 확보장 사업 등 4대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해 시도별 대표사업, 시·군·구별 특화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일손돕기 기동단'과 같이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품권 제도 운영이 중요한데요.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先상품권취급 後가맹등록' 운영을 통해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할인(깡)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상품권 교환실적 관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전 간

부 및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형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바로 잡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사용액이 40:60임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0: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중(34%)이 낮고,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

(39%)이 높은 실정이지요. 이런 지방재정 구조는 비효율과 함께 지방에서 사업효과와는 별개로 보조금 확보에 주력하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올 2월부터 균형위에 민간전문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관한 개편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세 구조개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순증이 없는 국가-지방간 재원 중립원칙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어요.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재정부 등 관계부처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최종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일부의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시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금적자(보전금)가 하루 평균 약 12억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법조항(금고 이상 형벌시 연금감액)이 지난 1월부터 실효되면서 법적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2년 6개월 이상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도출한 개혁안으로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역대 연금 개혁 중에서 가장 강도 높고, 공무원들도 많은 부담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연장 등으로 총 연금액이 현행보다 최대 25% 삭감되고, 기준소득상한 설정, 기여금 인상효과 등을 감안할 경우에는 추가 삭감효과도 발생할 걸로 봅니다.

지난 4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



▶ 지난 4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 간담회

금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지방을 돌아보시면서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 차례의 지역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 중 하나로 2016년에는 연간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년 홍수피해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 연간 13억㎥의 물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홍수 조절용량도 9.2억㎥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투자를 통해 수해로 인한 1.5조원이라는 연평균피해액과 2.4조원의 복구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4대강 유역 내 수질·생태계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76% 수준인 2급수의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수준을 2012년에는 83~86%로 올릴 수 있어요. 2000년 울산시가 태화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최근에는 1~2급수의 수질로 개선돼 매년 태화강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셋째, 4대강 살리기로 하천공간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전국 4대강 유역에 방치된 수변공간을 레포츠와 문화활동의 장으로 개조해 국토의 중심이 되는 삶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넷째, 4대강 살리기는 강 중심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약 34만명, 생산유발효과 약 40조원과 더불어 전국에 혈관처럼 흘러가는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모두 함



계 살리고 문화·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얼마 전 중앙부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월초부터 두 달여간 추진된 중앙부처 조직개편은 작년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의 변화된 정책상황을 반영하고, 비상경제체제하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기 대응 등 경제살리기, 환경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추진 및 국정과제 등 현안추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했고, 식의약품 안전, 교정·교도 등 민생안정 및 고용지원센터 등 대민접점 서비스지원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전환·재배치하면서 인력증원 없이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또 과 단위의 하부조직을 핵심기능 위주로 정비함으로써 부서간

칸막이 제거, 정보공유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일 감소를 통해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도 했죠. 앞으로도 경제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행안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4개 소관기관에 대해 인력감축, 예산절감 등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을 지난 5월 22일자로 통합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 종합적 국가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했죠.

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먼저,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또는 민영화·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부 지배구조 개선 등 운영체계 개선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 설립시 설립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기관장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사회와 견제기능을 강화할 겁니다. 이를 위해 CEO의 상임이사 임명권, 공무원의 CEO 겸직금지,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축소와 함께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이사회와 기관장 해임건의권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예산운영의 방안 요인을 제거하고,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특히 경영정보 통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외부감사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정책 실행과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관한 장관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Best)’ 인재보다는 조직의 가치, 문화, 업무에 부합하는 ‘적합한(Right)’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에 적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공직에 대한 열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직은 행복한 직업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죠. 따라서 채용단계에서부터 봉사정신, 윤리의식, 역사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검정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개인역량 개발 위주로 이루어졌던 교육훈련도 개인 소양교육을 축소하고, 통계·정책분석 등 전문 직무과정의 교육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외훈련은 영어권 중심의 학위과정을 축소하고 녹색성장, 자원외교 등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지역으로 직무훈련을 확대해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그동안 연구원의 지방자치아카데미와 조찬세미나 등의 명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인간개발연구원은 공직

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에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사회의 명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조찬모임이 얼마 전 1600회라는 대 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앞장서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학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 장만기 회장과 이달곤 장관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

김인술 온생명평생교육원 원장

우리는 입버릇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은 미래의 보배' 라고 말한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정작 그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후가 뒤바뀐 듯하다. 물건을 실어야할 배에 구멍이 났다면 그 구멍을 수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듯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건강을 챙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멍난 배에 짐을 싣듯 건강이 부실한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짐만 가득 실으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아빠 엄마가 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임부부가 140만 쌍이라고 한다. 4천900만 인구 중에서 출산연령 기간을 혼인 이후 15년(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면, 가임 인구가 대략 1천만 명이 되고 이를 부부로 환산하면 500만 쌍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불임부부 140만 쌍은 28%, 약 30%가 불임이란 결과가 나온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나라의 미래가 염려되는 시대인데 불임까지 겹쳐 더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 정체성 훼손으로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

### 젊은 세대의 문제는 우리 미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

얼마 전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미래포럼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때 필자는 충격적인 예견을 접하게 되었다. 이대로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어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라는 미래학자들의 예견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듣기에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후자들은 한국인을 가리켜 "서양사람보다 더 서구화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칭찬으로 들어야 할지 비아냥거림으로 들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훼손하여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재고해볼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외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국민소득도 한 때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외적인 것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내적인 부

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되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라는 춘궁기를 겪었던 절대빈곤 시절을 50대 이전 세대들은 기억한다.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시대를 거쳐 우리는 절대빈곤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먹는 것에 관한 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시절을 보냈다. 이 기간 우리 국민들의 신체발달지수(신장, 체격 등)가 현격히 상승된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좋아진 것이 있는 반면 나빠진 것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장이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졌다는 내용도 보도를 통해 같이 접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정자가 형편없어졌다는 것과 여성들의 생식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성들은 정자수와 활동성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여성들은 폐경기가 현저히 앞당겨지고 있다. 50을 전후해서 와야 할 폐경기가 40대 중·초반으로 당겨지고 30대에서도 나타나며, 최근에는 20대에서 폐경이 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정자검사서 자연식(전통한식)을 주로 하는 40~50대 중년 세대보다 칼로리를 위주로 하는 서구식 식생활을 즐기

는 20대 젊은 세대의 정자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패스트푸드로 대표되는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  
는 젊은 세대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미래  
를 담당할 세대가 아닌가. 이들이 문제가 되면 미래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  
기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임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겉으로 멀쩡하다고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이다.

### 우수한 인재양성 위해서는 태교부터 신경 써야

#### 태교는 잉태 전 몸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이다. 기술력이나 자본력도 형편없  
는 나라였다. 이런 약조건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훌륭한  
인적자원을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 첫째는 훌륭한 자질을 가진 아이를 출생시키는 일이다. 천재는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지만 이는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위로의 논리다. 천재  
는 태교를 통해 만들어지고 타고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  
지게 된 것은 조상들의 훌륭한 태교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청소년 시절 <조선총독부>라는 책을 읽고 난 후 나라 잃고 핍박받  
았던 우리민족의 삶이 부끄럽고 억울하여 여러 번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  
책 다섯 권이 필자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어떻게 하면 힘있는 민족이 되어  
다시는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화두가 된 것이다.

앞으로도 필자는 이를 화두로 삼고 살아갈 것 같다. 그 대안으로 필자는  
태교를 선택했다. 가진 것 없는 필자가 나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 하며, 또 우리의 현실에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우수한 민족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유태인을 꼽는다. 그런데 인종의 집합소인 미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제2의 유태인 또는 동양의 유태인이라는 칭호를 듣는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해도 한국인은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신생공업국에서 첨  
단산업의 최고수준까지 올라온 저력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쟁력의 비결을 유태인이나 한국인이나 독특한 태교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태교는 광의의 태교를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태교  
의 비밀을 찾기 위해 1987년 귀농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공부해왔다.

그 과정에서 태중의 태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잉  
태하면 늙는다"라는 사실이다. 잉태되기 전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신혼부부들에게 태교를 물으면 대부분 잉태하여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책 읽고 하는 것을 태교로 알고 있다.

이것이 태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  
이다. 광의의 태교를 말한다면 우선 어미 아버지의 몸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출산세대를 낳아준 부모와 이전 세대들은 영양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몸은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  
태건강이 무너져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 빈 강정이다. 잉태시  
킬 정자가 형편없다. 이런 정자로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  
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 태교를 하고 출산하여 좋은 교육을  
시킨들 얼마나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지금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다음 세대는 함량이 미달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조상들이 잘 가꾸어준 결과물이라 보아야 한다.

### 건강한 삶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선행돼야

먹거리 생산하는 농업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 지키고 인재 키우는 기본

훌륭한 2세를 위해서는 우선 건강(생태건강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생활을 통한 건강법을 체험을 통해 공부하게 되었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먹을거리다. 필자는 건강의 70%가 식  
생활에서 좌우된다는 믿음으로 2006년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이란 책  
을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전통밥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아 농사일과 교육을 하면서 틈틈이 쓴 책이다.

그런데 먹을거리의 재료는 농사가 아니고는 생산될 수 없다. 인간의 정  
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여 제2의 귀농을 결심하고 전북 진안군에 폐교  
된 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 얻은 결과는 과거에는 영양결핍이 원인이 되어  
오는 병이 많았다면 지금은 영양과잉과 오염된 먹을거리를 잘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옛날에는 육체적 노동은 많이 하는 반  
면 먹는 것은 부실했고, 지금은 거꾸로 먹는 것은 기름진데 소모시킬 활  
동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병나지 않게 먹는 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동안 교  
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으로 성인병들이 호전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병의 원인 중에 식원병(먹은 것이 원인이 된 병)이 가장 큼을 깨달았다.

교육을 하며 교육생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엄마와 좀 부족한 엄마 중 누  
가 임신이 잘 될 것 같느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영양이 풍부해야 임신이  
잘 될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영양이 과잉되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임신은 영양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때 잘 된다.  
이는 농사나 가축을 키워보면 알 수 있다. 농사도 거름기가 약간 부족할  
때 병도 적고 최고의 결실을 맺는다. 동물도 수태시킬 시기가 오면 절식  
내지는 단식을 곁행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임부부들을 단식시키고  
생식시키면 임신이 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못 먹고 살 때 아  
이들을 더 많이 낳았고 똑똑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수한 인재들을 출산하여 키우기 위  
해서는 먼저 우리의 농업이 지켜져야 한다. 우리 농업은 단순히 배를 채  
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 민족  
의 미래를 담보하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다. 굳이 옛 어른들의 표현을  
빌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지 않더라도 농업은 우리  
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인술**



김인술 원장

1953년 생으로 원광대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  
그룹에 근무하던 1987년 귀농을 결심하고 전북 진안으로 내  
려가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그 공로로 2005년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  
되기도 했다. 민족정신연구소장, 전북 진안 여성농업인센터  
대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연수원장, 온생명실림학교 원  
장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 중이다.

# 자치구 출범 20주년 맞은 대전 서구 녹색도시, 환경도시 선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주력

가기산 대전 서구청장



사진\_오경근 원장

"기후변화 문제는 머지 않아 우리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대전 서구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 및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최초로 2000년 10월에 취임한 가기산 구청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가 구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주민들의 의식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탄소포인트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구 출범 20년, 인구 50만의 거대 자치구 대전 서구는 행정, 금융, 유통, 비즈니스,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한데 이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모범도시를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으며, 그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가기산 구청장을 만나 서구청의 발전계획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중부권 최초로 개관한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 먼저 대전의 중심 서구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대전 서구는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 그 중심에 위치한 자치구로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구 50만이 거주하는 거대 자치구 서구는 정부대전청사, 시청, 법원 등 행정기관과 금융, 유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대전의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지요.

특히 서구는 어느 곳이나 숲과 공원이 어우러져 있는 살기 좋은 푸른 도시입니다. 생태하천인 갑천, 유등천, 그리고 구봉산, 장태산, 월평공원 등의 산이 있고, 도심과 어우러진 한밭수목원과 남산테마공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도시'를 자랑합니다. 또한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등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2000년 이후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압니다. 구정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주요 성과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 큰 상을 수상한 것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구는 대내외 구정평가에서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최초로 국가생산성혁신대회 6년 연속 대상 수상, 2008년 행복한 도시대상, 조선일보 환경대상, 대한민국 조정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죠.

특히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 대상에서 2003년부터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보기 드문 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 생산성혁신대상은 국무총리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으로는 최고의 상이어서 큰 의미가 있었죠.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주관해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9.07점을 받았는데요. 금품향응제거율 0%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정림동에 중부권 최초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개관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기조에 부응하는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구정목표와 함께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우리구가 자치구로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그에 걸

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이미 2020년을 목표로 한 '서구비전 2020'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7대시책 10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활행정, 창의행정, 비전행정, 환경행정 등 4대 구정 추진의지를 토대로 온 힘을 다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관저 5지구에 테니스장과 육상트랙을 갖춘 인조잔디 축구장 완공 등 체육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탄방동 도시철도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완비한 서구문화원 건립이 지난 5월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살리고 물과 빛, 소리, 역사를 소재로 현대적 감각을 살린 신개념의 문화축제 '수상뮤지컬 甲川' 공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와 탄소포인트제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정책들이지요.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머지 않아 우리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불편 등이 초래될 겁니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EU 등 38개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가 주어졌어요.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감축국가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감축한 온실가스는 경제적 이윤을 남기게 되고, 감축하지 못하면 오히려 배출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감축노력을 제도화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후변화대책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정책과 주요 동향을 알려주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89개 아파트와 28개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죠.

기후변화 대응은 화석연료의 주 소비계층인 주민들의 의식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홍보사진 순회 전시와 온실가스 줄이기 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구의 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천의 날 운영, 그린스타트 실천서약 운동 등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제도나 실천운동과 함께 서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1백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치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나무심기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공간이 생기기만 하면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구문화원 건립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는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적된 중부권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반면 서구만의 독자적인 문화원이 없어서 문화원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탄방동 도시철도역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하1층, 지상6층의 주차장과 문화원을 동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5월 착공했는데, 내년 5월에 완공되면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강의실 등 문화공간을 갖춘 서구문화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차장 부지는 주차공간 외에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주차장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8월에 막을 올리는 수상뮤지컬이 대전의 새로운 문화축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제의 배경을 말씀드리죠. 고려 광종 때 탐관오리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무신정권에 항변하기 위해 일으킨 '망이·망소이 민중봉기'의 발생지가 바로 우리 서구 탄방동 지역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빛, 소리, 역사를 소재로 '수상뮤지컬 甲川'을 준비하게 됐죠.

수상뮤지컬 갑천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공연 역사상



▲ 전국 최초, 최다, 최고 수준이 될 수상뮤지컬 갑천.eps

어는 곳에서도 시도되지 않은 수상에서 치러지는 '국내 최초'의 뮤지컬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전문연극인 100여명을 제외하고는 구민 1,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출연하는 '국내 최다'의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250m의 고려성 세트, 100여척의 수상돛목, 50여대의 대형 북연주, 300여명의 무사들이 춤을 추고 50m 상공에서 공중발레를 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뮤지컬이라는 겁니다.

오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엑스포 갑천둔치에서 열리는 수상뮤지컬 갑천은 구민이 직접 출연하는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수상뮤지컬 공연으로 우리 서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3년도부터 본원과 함께하고 있는 '서람이 자치대학'이 이제는 서구의 명품 이카데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효과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서람이 자치대학은 지난 2003년부터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정보습득 등을 위해 시작한 교육입니다. 1기 교육 때부터 참여 연인원이 6,2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난해까지 참여 연인원만 3만5800여명에 이르고 있어요.

7기를 맞은 올해 현재 10강이 진행됐는데요. 참여 연인원이 37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유명 강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강의에 참석한 구민들의 95%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참석한 분들이 계속해서 강의장을 찾는 것을 보면 실생활에 유익한 강좌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구민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국내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갖는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관심분야의 강의를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주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줬던 것이 큰 이유가 되겠죠.

앞으로는 주민의 높은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수강생이 제안한 의견을 분석·보완하고 발전시켜 보다 품격있고 수준 높은 서람이 자치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강사나 주제선정, 강의운영 등에 신선한 변화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서람이 자치대학'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구청장**



서구민의 숙원사업으로 내년 5월 완공될 서구문화원

## 님의 교육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과거는 서서히 변했으나 지금의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어 공직자들도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생각과 능력을 갖춰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셀러던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개발에 열정을 쏟는 주경야독의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서구청도 변화와 발전의 전환을 위해 내적으로는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외적으로는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연간 교육시간을 5급이하 공무원에 50시간 이상으로 하고, 2011년부터는 80시간 이상으로 의무교육 시간을 늘릴 계획이에요. 기존의 지방 및 중앙 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외에도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직장 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직무분야 10개, 소양분야 7개, 정보화분야 4개 등 21개 과정을 22차례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직무분야와 정보화분야 등 모두 18개 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원활한 구정 운영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50만 서구민들의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평생학습 파트와 인력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지역내 137개 기관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구체화시키고 서부교육청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기관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여성아카데미도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체험 교실 등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사람이 자치대학'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로 7년째인 사람이 자치대학은 인간개발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만족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겠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없애는 건 서울대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양병무 원장이 가기산 구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다 내실있게 좋은 강사진을 선정하고 양질의 강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자치대학이 좋은 반응을 얻는 건 다양한 주제와 유명 강사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펼쳤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유명강사를 모시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많은 도움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자치대학은 매년 16강 중 건강과 경제 분야의 강좌가 구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과 경제에 비중을 두면서 웃음이나 가정 분야를 비롯해 세계적인 문제인 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강좌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서구청의 미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의 목표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삶의 가치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비롯한 산불 피해면적, 공기 중 아황산가스 등 우리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의 가치 상향지표 37개를 발굴했는데요. 이들 지표가 모두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면 전국 5대 도시의 삶의 가치를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표 중 상위그룹에 속한 경제수준이나 정보화, 공공문화 편의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녹지·환경 분야의 31개 지표는 지속적인 관리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요.

공기 중 오존 농도를 비롯해 생활폐기물 발생, 모범음식점 지정 등 중위권 그룹 지표는 주민참여를 비롯해 의식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많지만 연차별로 개선 목표를 세워 상위그룹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대 도시 평균 이하 수준의 하위 그룹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 안으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KHDI**

정리 : 정응달 팀장 dal2020@khdi.or.kr



구민 만족도 95%를 자랑하는 사람이 자치대학

## 가기산 구청장

1942년 생으로 대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내무부 근무를 시작으로 대전시 재무국장, 내무국장, 제 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의회 사무처장, 대전시 정부부시장을 거쳐 2000년 10월 대전 서구청장에 당선돼 대전의 중심 서구를 이끌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았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 소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는 지난 6월 1일자로 모금 및 배분사업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실(기획조정실, 홍보실) 3본부(모금사업본부, 배분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체제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모금과 배분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조직 경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미문화재단(한미콘소바토리) 최신옥 대표**는 지난 6월 9일 학교법인 유성학원 세종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김수지)**는 지난 6월 10일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와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대학교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 **황수 GE코리아 사장**은 지난 6월 12일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한 헬시메지네이션(Healthymagination)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세계는 인구 노령화 및 고령화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향후 20년 뒤에는 의료비용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으로 GE는 향후 6년간 보건의료산업에 60억 달러를 투자해 의료기술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6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베트남협동조합연합회와 양국 농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 사업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 업무협력 의정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의 베트남 진출 협력, 베트남의 농업 연수자 송출 협력, 베트남 여성의 결혼 중개 관련 서비스 개발, 양국 농산물, 농자재 및 농기계 무역교류 촉진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아트앤마인드(대표 김현진)**는 미술을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열린 공간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미술재료들이 준비 되어있으며, 미술치료사와 함께 하며 기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Tel. 02-3448-0555>

• **LG엔시스(대표 정태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개인정보보호 상시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수주하였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 및 소속기관(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후쿠오카 시내에 주·일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공단은 일본 기업에 한국 인재를 소개하고 취직 전후의 연수와 상담 등을 진행해 연간 200~300명 정도의 인재를 일본에 취직시키겠다는 목표로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 **교보문고(대표이사 김성룡)**는 화가가 문학작품을 읽고 받은 느낌을 표현한 미술작품을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인터넷문학미술관' [www.kyobogallery.co.kr](http://www.kyobogallery.co.kr)을 대산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한다. 현재 100여명의 그림 474점이 올라와 있다. 한편, 교보문고는 현재 12권인 성인 1인 연평균 독서량을 2012년까지 18권으로 올리기 위해 '독서경영리더' 양성 강의를 개최하고, 분기당 중소기업 1곳에 서적을 무료 제공하는 '1218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가능성 신발 업체인 **성신신소재(회장 임병문)**가 건강보조 신발인 '토앤토'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였다. 토앤토는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다리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출시한 성신신소재는 나이키, 리복 등 세계적인 신발 업체에 중창(발바닥이 닿는 깔판)을 공급하는 업체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 **두상달 가정문화원 이사장**은 20여 년 간의 부부강사 활동과 상담활동을 통해 가정이 해체되어 가는 문화 속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서울중앙클리닉(김광 행정원장)**은 검진에서 치료까지 동시에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로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별히 임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준비하는 본원 회원(사)을 위하여 검진비를 10% 할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처: 김태호 부원장 Tel. 02-6450-5031)

###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의 자녀 민정양의 결혼식이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지난 6월 18일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월간 골프가이드	강민지 대표	7월1일
일양약품(주)	정형식 명예회장	7월1일
(주)반포텍	최계순 사장	7월1일
(주)삼아테크	한승우 대표이사	7월1일
眞徳建設(株)	차영준 회장	7월4일
삼보주단	윤종후 사장	7월5일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7월5일
우드뱅크	전창윤 회장	7월5일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7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7일
(주)이투엑스포	이재원 고문	7월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고문	7월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민형 상무	7월15일
KCTC	신태범 회장	7월20일
(주)에어랩	황진수 대표이사	7월21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27일
센테일러	우덕성 사장	8월1일
기업은행	윤용로 은행장	8월1일
비즈컴	조영상 사장	8월1일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	8월1일
농업법인조인주식회사	한재권 사장	8월2일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14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8월15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8월27일



■ **김혜중** 프로매치코리아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3 다형빌딩 9층  
 · 전 화 : 02-558-3267  
 · 팩 스 : 02-567-7860  
 · 업 태 : 헤드헌팅, 취업컨설팅  
 · 홈페이지 : www.promatch.co.kr



■ **전미옥** CMI연구소 대표 \*제1542회 경영자연구회 강연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32-7 계원빌딩 702호  
 · 전 화 : 02-3147-2223~4  
 · 팩 스 : 02-3147-2229  
 · 업 태 : 서비스(홍보 및 광고대행, 기업경영컨설팅 외)  
 · 홈페이지 : www.mycmi.co.kr / www.jeonmiok.com



■ **류인식** (주)세비앙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27-32  
 · 전 화 : 031-765-3110  
 · 팩 스 : 031-765-3113  
 · 업 태 : 제조, 도소매 (육조 및 육실용품)  
 · 홈페이지 : www.cebien.com

**소모임 소식**

• **인목회(회장 방기봉 / 총무 한종덕)** 6월 모임은 지난 29일 강원도 산골에서 건강수련원 '기림산방'을 경영하시는 김중수 부부를 모시고 "생명온도를 살리는 법"에 관해서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이종원)**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사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09년 7월 21일(화) 오후 6시
- ▶ 장 소 : 옛날민속집 1호점(Tel. 02)379-6100
- ▶ 연락처 : 총무 이종원(H.P. 010-5306-8587)

• **인경회(회장 이용국 / 총무 이종원)**는 지난 5월 26일 한양C.에서 회원친 선춘계 대회를 가졌습니다. 20여분의 회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용국 신원휠트공업(주) 회장과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의 협찬으로 풍성한 회원친선대회가 되었습니다. 6월 월례경기는 6월 23일(화) 한양C.에서 가졌으며, 7월 인경회 월례경기는 제27회 인간개발 제주 CEO 섬머포럼의 인경회배 대회로 개최되오니 인경회 회원님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신규회원** (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 **신호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주 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46-10 신영B/D 5층  
 · 전 화 : 02-3445-1187  
 · 팩 스 : 02-3445-1197  
 · 업 태 : 교육서비스  
 · 홈페이지 : www.kofair.or.kr



■ **한영수** (주)첨단엔프라 대표이사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23-2  
 · 전 화 : 031-353-8011  
 · 팩 스 : 031-353-8010  
 · 업 태 : 제조업 (자동차 엔프라부품)  
 · 홈페이지 : www.cdenpla.co.kr



## 회원 & 연구원 소식

### • 책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 6월 모임은

지난 6월 8일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2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6월 모임에서는 정지환 여의도통신 편집국장님의 글쓰기에 관한 노하우와 '강연요약의 묘미'란 주제로 열강을 해주셔서 참석하신 회원님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7월 모임은 에세이클럽 발전을 위한 열린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7월 13일(월) 오후 6시 40분
- ▶ 장 소 : 문학의 집 · 서울 산림문학관 2층홀
- ▶ 문 의 : 정용달 팀장 (Tel. 02-2203-3500 내선 108)

###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6월 모임은 지난 6월 9일 최우영 성원개발(주) 사장 자택에서 바비큐 파티로 진행되었습니다. 7월 모임은 이상길 국민대교수(조각가)의 개인 전시회로 가질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 ▶ 장 소 : 인사동 선화랑(TEL.02-734-0458) 종로구 인사동 184번지
- ▶ 문 의 : 정성숙 과장 (TEL.070-7500-9508)

## 지자체 소식

### • 진천경찰 '시민경찰학교' 운영

충북 진천경찰서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과 형사사건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5일 진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에 지원한 군민 23명을 대상으로 1기 입학식이 열렸다. 시민경찰학교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간씩 모두 16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방법 및 법률, 교통사고 처리요령, 형사사건 진행절차 등의 교육으로 실시된다.



### • 완도군 제22기 '청해진희망강좌' 군민 의식향상과 삶에 활력 불어 넣어

지난 5월 21일 완도군 '청해진희망강좌'에 MBC 전원일기를 통해 친숙한 탤런트 김수미씨가 초청되어 "성격이 팔자를 고친다"라

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리한 김수미씨의 열강에 많은 군민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또한 김수미씨는 완도군에서 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면장 공모제에 흔쾌히 응하여 완도군 전북 명예면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2007년부터 완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해진 희망강좌'는 지역사회 지도층과 공무원, 일반주민, 군인,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여 운영되고 있다.



### • 장성군, O2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개최

전남 장성군은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장성군 축령산 조림성공지 일대에서 'O2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2009'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장 소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창 장성군수는 "산소축제는 축령산 천혜의 풍경속에서 펼쳐져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소규모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축제가 치러지는 축령산은 편백나무와 삼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향으로 인해 최적의 삼림욕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등으로 선정된 곳이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좋은사람좋은세상"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과장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70-7500-9500
- 팩 스 : 2203-1974

# 실버건강 특별세미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사회에도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로 인해 수명은 길어지는데 반해 건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지사회로 급진전되고 있지만 노령화문제를 해결할 국가재정이나 우리들의 의식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고 있다.

본원은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본이 되고, 보다 적극적인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5월 14일 한경 다산홀에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회원 및 일반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지 서울사이버대 총장과 오가와 신세이 일본 게코루 라이프 대표의 주제발표로 진행었다.

일본에서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오가와 신세이 대표는 "지금 일본에는 치매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을 만큼 치매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일본을 의료대국이라고 부르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현실은 어렵다. 지금의 일본이 되지 않으려면 한국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강연에 들어가기 전 먼저 간단한 운동을 다함께 하고 시작하자고 했다. 그가 제안한 운동은 심신기능활성운동요법으로 마음과 몸을 활성화시켜 몸을 개선하는 운동방법이었다. 실제 참가자들은 손뼉치기, 산 오르기, 날기, 만세 운동 등 4가지 운동을 8번씩 4회 반복하며 심신기능활성운동요법을 체험해봤다. 오가와 신세이 대표는 "이 운동은 소리를 내면서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해야 하며,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수지 총장은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 '100세 시대'라는 새시대에 살고 있다. 100세 시대에 맞는 노년기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늙어 감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중년기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부부생활이다.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감사의 대화를 나눠야 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노후 생애설계와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된 이번 특별세미나는 본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 하고, 오마이뉴스, 노년시대신문, 대한노인회, 서울사이버대학교, 북리슨 등이 후원했다. **KHDI**



제27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섬머포럼

# CEO SUMMER FORUM

## 생각의 진화로 미래비전을 디자인하라



일 정 : 2009년 7월 29일(수) ~ 7월 31일(금) 2박 3일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주 최 : 인간개발연구원

참가대상 : 기업/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300명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최고경영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며 성장을 이룩한 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기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은 어둡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이 번 섬머포럼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장전략,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의 지혜, 불황의 파도를 뛰어넘는 도전과 극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준비하였습니다.

기업과 각계의 리더들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길잡이가 되고, 하반기의 경영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분들과 경제적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포럼 기간을 하루 단축하여 2박3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위기의 터널을 뚫고나갈 가족과 함께 학습과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원장 **양병무**

### BUSINESS SESSION Speaker



조순 전 경제부총리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신재철  
LG CNS 사장



손 옥  
농심 회장

이재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CULTURE SESSION Speaker



김미경  
W.Insights 대표

김종석  
방송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채바다  
시인

정이안  
정경연 이안한의원 원장

안숙선  
판소리 명창

※ 일정순 표기



# Jeju Summer Forum Program

## 7/29(수) 제1일차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제성장 전략

- |       |  |       |  |
|-------|--|-------|--|
| 10:00 | 김포공항 - 제주공항- 롯데호텔 이동   | 15:40 | <b>[경제특강]</b> 한국경제와 금융 새롭게 태어나야 산다<br>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               |
| 13:00 | 참가자 등록 및 Check in  | 16:50 | <b>[소셜디자인]</b> 우리시대 희망을 말한다<br>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 15:00 | <b>[개회사]</b>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18:00 | <b>[가족특강]</b> 위기돌파력이 강한 '가족 DNA'의 완성과 가족성공학<br>김미경 W.Insights 대표 |
| 15:05 | <b>[오리엔테이션]</b> 행사 주요내용 안내 및 공지사항<br>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19:00 | <b>[특별 환영만찬]</b> 국가대표MC 김종석과 함께 하는 참가자 친교 한미당<br>롯데호텔 잔디광장       |
| 15:10 | <b>[기조강연]</b> 지구촌 경제위기, 기업의 신성장과 한국경제의 비전<br>조순 전 경제부총리/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  |

## 7/30(목) 제2일차 | 미래를 창조하는 경영의 지혜

- |       |  |       |   |
|-------|--|-------|---|
| 09:00 | <b>[굿모닝여행]</b> 놀멍 쉬멍 걸멍 제주올레로 느끼는 인생의 여백<br>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 16:50 | <b>[경영특강3]</b> 세계의 관문, 한국의 자랑 - 인천국제공항<br>ASQ 4연패 성공신화<br>이재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
| 06:00 | <b>[제주섬머포럼 친선골프대회]</b> 인간개발연구원 인경회배<br>엘리시안 cc           | 18:00 | <b>[경영특강4]</b> 위기경영에서 필요한 리더십<br>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
| 14:30 | <b>[경영특강1]</b> 디지털 이노베이션<br>신재철 LG CNS 사장                | 19:00 | 단체사진 촬영, 친선만찬, 골프시상식  |
| 15:40 | <b>[경영특강2]</b> CEO를 위한 경영의 지혜 - 십이지 경영학<br>손 욱 농심 회장     | 20:00 | <b>[친선음악회]</b> 판소리 명창 안숙선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                                  |

## 7/31(금) 제3일차 | 불황의 파도를 뛰어넘는 도전과 극기

- |       |   |       |  |
|-------|---|-------|--|
| 10:00 | <b>[굿모닝건강]</b> 스트레스 제로의 기술<br>정이안 정경연 이안한의원 원장          | 15:40 | <b>[종합강연]</b>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br>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 12:00 | 점심식사  | 16:40 | <b>[Closing Remark]</b>                              |
| 13:00 | <b>[감성충전]</b> 하멜과 네델란드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br>채바다 시인, 바다박물관 관장 | 16:55 | <b>[폐회인사]</b>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 06:00 | <b>[제주섬머포럼 친선골프대회]</b><br>엘리시안 CC                       | 18:15 | 제주공항 - 김포공항  |
| 14:30 | <b>[국가경쟁력]</b> 국가브랜드 제고와 기업브랜드<br>여운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  |



# 글로벌시대 지역과 중소기업의 발전과제

제65회 전남 목포시 '서남권아카데미' 5월 21일(목)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05년 2월 18일 개강 이후 현재 월 2회씩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남권아카데미'는 본원과 목포시(시장 정종득)가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서남권 아카데미는 회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5월 21일 "글로벌시대 지역과 중소기업의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65회 강연을 해주신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경영전략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기업과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마스터플랜이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 계획을 세우고 경영자본을 배분하는 기본 행동지침이기도 하다.

###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경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앞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 잠재적 진입자들이 새로운 대체품을 갖고 등장하지는 않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네 번째, 상품을 만들 때 부품을 공급받는 업체나 자기가 납품하는 업체의 기술이나 경영상태 등을 잘 봐야 한다. 다섯 번째,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타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

또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서바이벌 전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제품을 싸게 생산해야 한다. 다른 제품과 무엇인가는 달라야 한다. 세 번째, 집중해서 특정한 제품, 특정한 지역, 특정 구매자를 전략적으로 소위 리치마켓을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

### 경영환경의 불안정성 증대

최근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의 자금유동이 악화되었고, 세계경제가 일시에 불황상태에 빠져 버렸다.

세계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시장만능주의가 퇴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동차회사의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산업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주의로 회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살아야 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일본,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해야 하는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는 국제회의에서 보호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WTO나 FTA가 확산됨에 따라서 세계경제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 139건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전세계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FTA협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국 시장을 침투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국경없는 경제시대가 도래했고, 모든 기업들은 국내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CO2 등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다. 지난 100년간 평균 온도가 0.74도 올라갔고 우리나라의 경우, 1.7도 올라갔다.

금세기 말인 2100년까지 6.4도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면 약 60c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다.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UN환경프로그램에서는 1조 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온난화로 가뭄이 발생해 물 기근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원고갈 문제도 심각하다. 석유의 경우 2020년까지가 석유 생산량이 최고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줄어든다. 앞으로 남은 것이 37년 정도인데, 그 이전이라도 석유가격은 생산증가 속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고, 2020년이 지나면 석유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천연가스는 67년, 석탄은 192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석탄은 석유에 비해 CO2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다.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자원고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당면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저출산 문제다. 출산율이 너무나 저조하다. 여성 한 명이 15세부터 49세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1.19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18년만에 고령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지금처럼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19명에 머무른다면 2050년경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고용비용이 올라간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노동생산성이 28.8달러이다. 일본 41.7달러, 미국 50.6달러의 60% 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이 낮다. 근로자 1인당 임금을 구매평가지수로 환산한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이다.

### 위기 속에서의 중소기업 경영

앞서 언급한 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은 적절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 전략이 될 것이다. 금융체제가 불안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 상황을 보고 전망이 없는 사업분야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M&A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야 하며, 경제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근로자들을 자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상승에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R&D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온난화와 자원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녹색성장산업을 찾아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는 돈을 풀어서 일단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일자리를 유지해 사회가 안정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 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은 완화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우대해준다. 과거에는 10인 이상 추가 고용시에 금리를 우대해줬는데, 지금은 5인 이상 추가 고용시에 금리를 우대해주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도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사업화 자금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고용유지기업과 잡채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부채비율이 200~500%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됐지만 지금은 300~600%까지 대출을 해준다. 부채비율 산정기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평균을 내다가 지금은 중소기업만의 평균을 내서 적용하고 있다.

넷째, 대출 평가기준의 경우 비재무평가 기준을 일반기업은 80%, 자산 10억 미만의 소기업은 90%로 잡고 있다. 창업 3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기준을 보지 않고 사업성과 기술성에 의해서만 대출을 해준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의 자금을 별도로 만들어 우대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대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에 있는 지역본부장이나 지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IMF 때는 우리나라만의 외환위기였고 세계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미국발 경제위기로 지금 전세계 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 IMF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시작한 시기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서부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지자마자 즉시 지원에 들어갔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조기대처를 했고, 과거에는 조기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각종 정부지원 적극 활용하는 경영 펼쳐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도 많이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하는데, 작년 보증기금이 46조에서 올해 83조로 늘어났다.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는데, 이 역시 작년 5조3천억에서 11조9천억으로 늘었다.

이렇게 정부 부문에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도산은 실업을 증가로 이어진다. 실업을 급증은 사회불안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위기극복의 제대책으로서 돈을 풀어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을 다 살리지는 않는다. 구조조정이 안 되는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정부의 각종 지원을 중단해서 그 기업이 존속되지 않는다면 빨리 퇴출시킨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M&A도 필요하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제품만 만들어 팔아서는 실패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을 가진 사람을 사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안 된다면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 사업이 잘 된다면 그렇지 못해 매각하는 회사를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M&A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M&A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해 한계 기업을 빨리 퇴출시키고 실패한 기업업인에게는 재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 혁신 통한 경쟁력 확보로 위기 극복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시장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올려서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려면 해외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중소기업을 예로 든다면 흥진크라운과 영안모자가 있다. 흥진크라운은 오토바이 헬멧을 만드는 회사로 전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영안모자는 전세계 모자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느 작은 분야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전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으면 국내에서조차 살아남을 수 없다.

대개 R&D 지출의 경우 기술혁신은 선진국의 경우 95%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해서 대기업에 판다. 그리고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상대로 시장을 넓혀나간다. GDP 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많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혁신은 제품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 제품을 새 공정에서 만들거나 새로운 시장이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혁신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먼저 산업화가 됐다. 대기업의 기술이 앞서고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그 후에 생겨났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기술개발의 보람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만의 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황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가절감과 제품의 차별화, 고객 차별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우**



이기우 이사장

1955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장, 차장 등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수립 업무에 몸담아왔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창원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 비전과 사명의 힘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2010년 2월 5일이면 인간개발연구원이 35주년을 맞는다. 지난 6월 11일에는 34년 전 시작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600회를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특별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연구원의 회원들과 각계의 지도자 300여명이 모여 한국정치의 캄캄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밝아올 미래와 새로운 비전을 그려내고자 진지한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참가한 모든 분들의 표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지난 34년의 세월 속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모두가 고무된 느낌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모든 참석자들이 진심 어린 축복과 연구원의 미래에 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음에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34년 전 한국의 경제상을 생각해 보면 '인력개발'이라는 의미의 '인간개발'이라는 착상은 다소 엉뚱한 생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연구원을 창설할 당시 학계 전문가와 기업의 CEO 여러 분들과 함께 생각한 '인간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달랐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욕망과 열의가 컸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제일주의 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이 몰고 올 복잡한 인간의 문제와 사회 문제를 예측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개발'의 비전과 사명의 싹이 돌아나게 되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새로운 인간의 시대, 인간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지식·정보·통신·교통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화와 함께 민주화의 정치혁명문화가 발흥하면서, 전 세계가 인간혁명과 함께 걸잡을 수 없는 리더십의 위기에 휩싸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계를 이끌어 온 미국이 인간혁명에 의해 일어난 리더십의 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미국에서도 뜻밖의 오바마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란에서 일어난 선거부정이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

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 집중되고 있다.

인간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찌 미국, 이란뿐이겠는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세계 도처에서 인간혁명이 일어나면서 리더십의 위기는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계경제위기를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지만 위기를 일으킨 근본 동인은 리더십의 위기다. 리더십 위기의 뿌리는 바로 인간혁명에 있음을 읽을 수 있다.

21세기 인간혁명시대에 리더십의 핵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 연구원이 1997년 이래 주창해온 '새천년 새인간 새세계' 속에 담긴 PT(People Technology)에 관한 생각이다.

21세기를 맞아 전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급변하면서 직면하게 된 새로운 인간의 문제에 대응코자 한 것이 '새사람'이란 개념이 담긴 PT이다. IT, BT, NT 등으로 표현된 21세기의 첨단기술시대를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PT시대의 도래를 시사하고 TPT(Total People Technology) 사상과 철학을 정립하여 Better People Better World의 핵심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TPT를 '참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의 지혜'로 정리하고 다가오는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5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구상하고 있다. 연구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해에 연구회 1000회를 맞으면서 '새천년 새인간 새세계'라는 새천년의 과제를 표어에 담아 연구원의 제2창설과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해 왔다. 세계의 평화(Peace), 인류의 번영(Prosperity), 인간의 행복(Happiness)이라는 연구원의 이상과 비전을 TPT에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향후 연구원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지도적 인사들과 함께 숙의하고 연구해서 짜임새 있는 발전 전략을 세워 35주년에 즈음해 발표하려고 한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제2창설이라는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에 <좋은사람 좋은세상>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해야 하는 것임을 믿는다. ■■■■



#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

윤병철 한국FPSB, 한국FP협회 회장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말하는 감성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징표이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사랑스럽거나 밉거나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출되는 것이 감성이다. 이런 감성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증오의 관계로 이끌기도 한다. 감성은 또한 휘발유처럼 불이 잘 붙는 까닭에 기업에선 마케팅의 수단으로, 정치인은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곧잘 활용하곤 한다.

인간을 인간 이상으로, 때로 인간 이하로 만드는 것이 감성이라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다. 사리의 옳고 그름, 진위를 가리고 판단하게 하는 이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인간이 여러 형태의 조직과 집단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이를 질서정연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뜨거운 감성을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냉철한 이성 덕분이다.

이와 반대로 감성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활개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민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본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가 빚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광우병 소동 때 통제되지 않은 감성이 빚어낸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올 들어선 한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정제되지 못한 감성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장외 집회, 일부 대학교수 변호사 문인의 시국선언, 노동계의 가두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보편적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형식이며 그 실체는 법률이다. 법은 공동체의 이익을 돌보기 위한 이성의 명령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이 같은 법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는 법치주의는 근대 시민국가의 기본 원리로써 누

구도 법 이외의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으며 주권자인 국민 또한 법의 지배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일찍이 김구 선생도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에 대한 복종이 민주주의의 3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결을 부정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든 말든 거리 시위를 벌여도 괜찮다는 생각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신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더욱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특정 신문에 광고를 실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기업체에 집단적으로 협박 전화를 넣는 단체까지 등장한 상황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민주사회에선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내용 못지 않게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까지 합법적일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고대 도시국가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아테네가 몰락한 것은 시민의 방종과 무절제였다. 민의를 수렴하여 의회와 법률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정강정책을 세워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할 정당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감성적인 여론에 편승하거나 이를 부추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테네를 몰락시킨 중우(衆愚)정치가 빚어지고 만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도 법을 무시하는 정서가 팽배해지면 무정부 상태가 빚어진다. 아무도 바라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새로운 정부 형태일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생각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소중한 것이다. 나와 생각이 달라서 긍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민주 시민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적 도리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와 행동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에 통제되지 않은 감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후회할 일을 낳는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이를 말해준다. **▶▶▶**

2008년 9월부터 집필해주셨던 윤병철 회장님의 칼럼이 이번 호로 마감됩니다. 그동안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윤병철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관리비 만원 깍아주는게 어디야!



₩ 10,000



“관리비 깍아서  
디저트 샀어요~”

## IBK My APT 카드

아파트 관리비, IBK기업은행이 깍아드려요

아파트 관리비, 이제 카드로 내세요  
 마감날 잔액 챙길 필요 없고, 일일이 은행갈 필요도 없고  
 IBK My APT 카드로 내면 매달 10%씩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아끼는 주부 마음, IBK기업은행이 들겠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최대 10,000원)



- ▶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 ▶ 통신비 3% 할인
- ▶ 영화 2,000원 할인
- ▶ 외식 10% 할인
- ▶ 주요 놀이공원 30~50% 할인
- ▶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 할인

[카드신청은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ibk.co.kr)나 전화(1566-0088)로 발급 가능]

#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의 특별한 만남

## 1600회 기념 이벤트

대한민국 대표 리더들의 모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600회를 맞아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개발 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은 시대를 읽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리더들의 모임으로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룹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더욱 멋지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간개발연구원의 조찬경영자연구회의 off-line 교육과 한국경제신문 HiCEO의 on-line이 함께 만남을 기념하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1600회 특별 이벤트

**회원혜택** : 인간개발연구원 및 한경 HiCEO 정회원

**이벤트기간** : 2009년 6월 - 8월, 3개월 간

**회원이입비** : 100만원 (VAT면세)

**신청방법** :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발송

**가입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과장 (070-7500-9500)

한국경제신문 이주영 과장 (02-360-4041)

• 기존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에게는

- HiCEO 1년 정회원 멤버십 제공

• 기존 **한경 HiCEO 회원**에게는

- 50%(50만원) 회비로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 제공

• 개별로 회원가입하실 경우는

- 인간개발연구원 : 1년 100만원 / 한경 HiCEO : 1년 50만원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  
몇달 전부터 그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K사장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켜는 건 그의 컴퓨터.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기 무섭게

메인화면은 HiCEO에 맞춰집니다.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HiCEO

오늘은 무슨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

경제 정책부터 최근의 이슈까지 한눈에 봅니다.

**"한 강좌에 하나씩만 새 아이디어를 찾아도  
1년이면 수백개의 새 아이디어를 얻는다."**

K사장이 매일 HiCEO를 보는 이유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당신의 길  
HiCEO가 함께 하겠습니다.

# Your Dream Partner

www.hiceo.co.kr TEL 02.360.4040 FAX 02.360.4049 EMAIL hiceo@hankyung.com

HiCEO